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한국 사회 교육성취 현상과 명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학업성취가 차지하는 비중,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한국 청소년들의 탁월한 학업성취도, 지나친 교육열과 학업성취의 추구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교육에 몰입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근원과 기제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토착심리,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 부모의 토착심리, 그러한 한국 부모와 자녀 마음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학업성취과정에서 친구와 교사의 영향,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향해야할 교육적 성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 시기까지 교육적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적 목표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양적인 성취에서 질적인 성취로, 학업성취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획득으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한 교육적 성취로서 성공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어 : 학업성취, 토착심리, 부모자녀관계, 성취압력, 사회적 지원, 주관적 안녕감

[†] 교신저자 : 김의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uicholk@inha.ac.kr

한국 사회 교육성취 현상과 명암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학업성취가 차지하는 비중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80대 할머니가 월 3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아껴서 모은 돈 1,800만원을 대학 장학금으로 내 놓은 일(조선일보, 2007, 12, 31)이 알려졌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이유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할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어려서 가난 때문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항상 서러웠는데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선행의 밑바닥에 학업에 대한 좌절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열망은 단지 이 80대

할머니의 욕구만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의 학업에 대한 좌절을 승화시켜 장학금을 기탁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담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은 한 개인의 특수한 예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현상(Kim & Park, 2008)으로 보인다.

그림 1은 한국 학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이 무엇인가라는 동일한 질문을 다른 시기에 다른 두 개의 연구 결과이다. IMF시대 이전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박영신, 김의철, 1999)를 보면,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학업 실패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IMF시대 이후에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학업 실패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업 실패라는 개념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대학입시 실패였다. 이외에도 성적 하락, 휴학 및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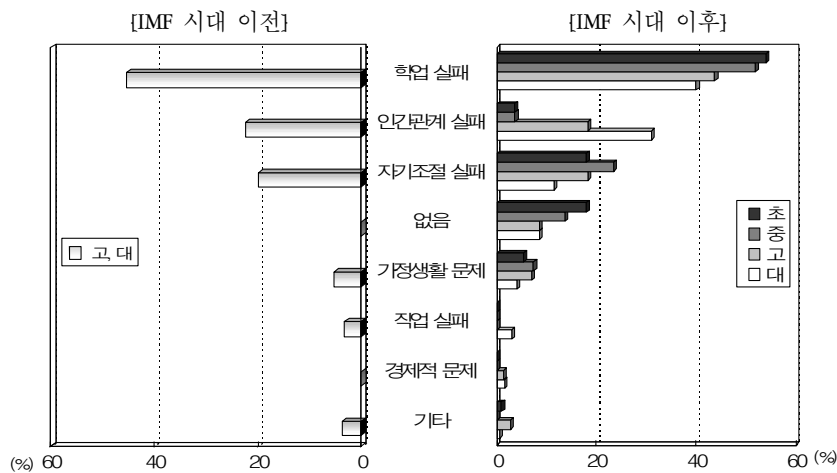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학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

출처: 박영신, 김의철(1999);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5).

중단, 학교생활 실패,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함, 진로 및 학과선택의 실패가 학업 실패 개념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에서의 합격 여부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의 하락이나 시험에서의 실패 및 학업 중단과 같은 실패경험을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밝혀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할머니가 장학금을 내어놓는 마음(조선일보, 2007, 12, 31)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80대 할머니의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의 일부분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특별히 대학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특별한 교육열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한국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비용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787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조선일보, 2007, 10, 17) 출생 후 대학교육까지 자녀당 2억 3,199만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로는 영아(0-2세) 2,264만원, 유아(3-5세) 2,692만원, 초등학생 5,652만원, 중학생 3,132만원, 고등학생 3,592만원, 대학생 5,865만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의 비중이 46.4%였고, 가구 소비지출 중 자녀 양육비는 56%나 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990,000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자녀 1명당 541,000원을, 월평균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3배인 1,505,000원을 지출하였다. 가구 소비지출의 반 이상이 자녀양육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부모들이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자녀양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양육비는 학교 등록금과 교재비와 같은 공교육비와 더불어, 개인과외나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비, 약값 통신비 옷값 용돈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양육비가 더 드는 것은 예체능 학원비와 개인과외비가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결과를 볼 때, 자녀양육을 위해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국제사회 속에서 검증된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가정의 부모지원은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다. 부모의 희생적인 지원을 받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에 영향을 미친 가정변인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국제비교 지표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는 OECD 국가들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결과(PISA)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31개국이 참여한 PISA 2000, 41개국이 참여한 PISA PLUS, 40개국이 참여한 PISA 2003, 57개국이 참여한 PISA 2006의 결과에서

변화과정)을 검토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이 탁월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는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이 평가는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의 국제비교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05)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성취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를 OECD 국가 청소년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역시 한국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나타내었다.

PISA 2000에서 PISA 2006에 이르기까지 7년간의 추적결과를 볼 때 PISA 2003에서 4위를 했던 과학영역이 7-13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최상위권(5%) 학생들의 순위도 2위에서 17위로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중앙일보, 2007, 12, 5)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PISA 2006에서 읽기 영역은 1위, 수학영역은 1-4위를 하였고, 최상위 5% 학생들의 순위도 읽기는 1위, 수학은 2위를 나타냄으로써 PISA 2003에서보다 더욱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PISA 2003에서만 실시되었던 문제해결력 영역의 경우는 세계 1위로 확

인(박현정, 이광현, 강성국, 2005)된 바 있다. 따라서 비록 PISA 2006의 과학 영역에서 하락하였으나, 읽기 영역과 수학 영역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교육성취수준은 계속 향상하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에 있다는 결론이다.

그림 2는 PISA 2006의 읽기 영역과 수학 영역을 중심으로 성취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이다. 참여한 총 57개 국가들의 성취도 국제평균(읽기 492점, 수학 298점)과, 그러한 국제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인 국가들 중에서 10개 국가들의 성취도 점수가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은 읽기 영역에서 556점으로 57개 전체 국가별로나 30개 OECD 국가별로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학 영역에서는 547점으로 전체 국가별로는 홍콩 중국과 함께 3위를, OECD 국가별로는 2위를 차지하였다.

PISA 2006 본검사(이미경, 박선화, 손원숙, 남민우, 2006)에 참가한 57개국 40만명 중에서 OECD 회원국 30개국과의 결과만을 비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4)해 보면, 한국 학생들은 더욱 높은 순위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읽기(1위)와 수학(1-2위)만이 아니라 과학성취도도 5-9위였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집념,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졌고, 사회 전반의 낮은 문맹률, 많은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한국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좁은 국토에서 그것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60년 만에 이루어낸 대단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었던 사실에 대부분 수긍할 것이다.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와 더불어, 사

1) **읽기영역 추이:** PISA 2000, 6위→PISA PLUS, 6위→PISA 2003, 2위→PISA 2006, 1위
수학영역 추이: PISA 2000, 2위→PISA PLUS, 3위→PISA 2003, 3위→PISA 2006, 1-4위
과학영역 추이: PISA 2000, 1위→PISA PLUS, 1위→PISA 2003, 4위→PISA 2006, 7-13위
최상위권(상위 5%) 읽기영역 추이: PISA 2000 20위→PISA PLUS 21위→PISA 2003 7위→PISA 2006 1위
최상위권(상위 5%) 수학영역 추이: PISA 2000 5위→PISA PLUS 6위→PISA 2003 3위→PISA 2006 2위
최상위권(상위 5%) 과학영역 추이: PISA 2000 5위→PISA PLUS 5위→PISA 2003 2위→PISA 2006 1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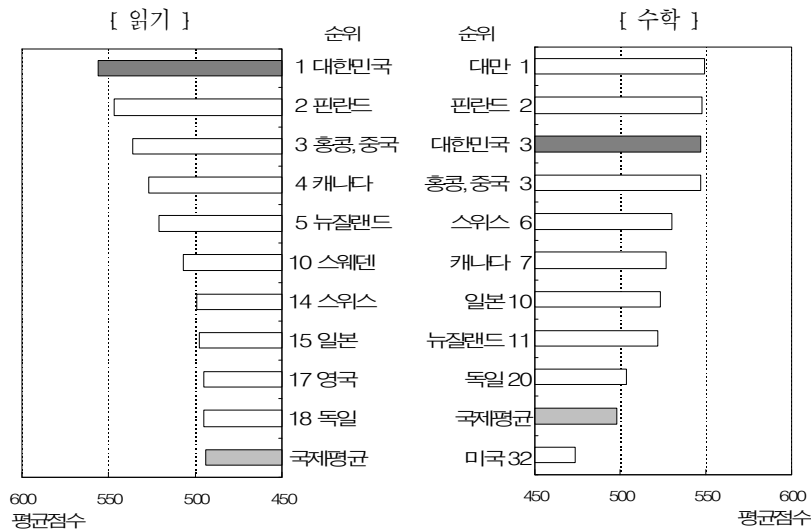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고 1 학생의 읽기와 수학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PISA 2006 결과 분석²⁾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12, 4)

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국제적 수준의 성취가 있었다. 예컨대 스포츠 분야를 보면 2007년 한국인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지닌 여성 운동선수로 확인된 김연아(동아일보, 2007, 11, 28)의 경우, 2007-2008 국제빙상연맹(ISU) 피겨그랑프리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경제 분야를 보면,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을 물리치고 메모리 신성장론³⁾을 8년째 입증하며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조선일보, 2007, 10, 24). 한국의 이러한 반도체 첨단 가공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1999년부터 메모리 성장신화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성취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인재들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인재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 육성되었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자기조절을 통해 이룩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2) 미국의 경우는 PISA 2006에 참여하였으나, 읽기 영역에서 검사지 인쇄상의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미국은 수학 영역(국제평균 492점)에서 474점으로 전체 국가 57개국 중 32-36위에 해당하며, 과학 영역(국제평균 500점)에서 489점으로 24-35위에 해당함.
- 3) 같은 크기의 메모리반도체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1년마다 두 배씩 늘릴 수 있다는 이론. 황창규 사장이 2002년 국제반도체학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일명 ‘황(黃)의 법칙’으로 불린다. 1999년 256메가비트 낸드플래시(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성취의 그늘

위에서 우리는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와 교육의 과정에서 육성된 인재들이 경제

장 반도체)를 개발하였는데 2007년에는 64기가비트 낸드플래시를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하였다. 64Gb 낸드플래시는 엄지손톱 크기지만 DVD 영화를 5편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반도체이다.(조선일보, 2007, 10, 24)

등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취를 주도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이 그러한 장밋빛 결과들만을 이룩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삼환(2002)은 위기의 한국에 교육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교육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교사 요인과 교육적 지도력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철훈(2001)은 한국의 대학입시와 학교문화의 현실이 내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풍토에 대한 회피가 되었든 아니면 특수 재능을 교육받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표에서든 한국에서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조기유학의 열풍에 대해, 김광웅(2006)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조기유학을 통해 한국교육의 상황과 문제를 대처하는 경우는 부모가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고 자녀교육에 지원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을 생각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 낙오되는 경우도 많다. 경쟁에서 낙오된 아이들 또는 학업을 중퇴한 아이들(손승영, 전효관, 정경희, 주은희, 최은기, 2003)의 부적응과 심리적 상처, 이러한 문제들이 성취주도적인 풍토에서 부산물처럼 우리의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 누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취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점차 질적으로 다른 세계로 빠져들어 학교폭력 등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일탈청소년들도 있다. 학교폭력 등과 같이 극단적인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국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학업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묘성(2002)의 분석 결

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47.4% 중학생 55.1% 고등학생 55.4% 대학생 26.3%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경험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학업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중압감이 매우 심각함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김의철과 박영신(2008)은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한 SWOT접근을 통한 분석에서 약점요인 및 위협요인으로 여러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이나 개인적인 현상들 외에도 과도한 성취추구의 그들이 한국 사회 각 부문에 자리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학령기 아동의 감소 및 교원수급 조절에서부터 노인부양 문제가, 결국은 사회 인구구조의 문제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여파가 염려되고 있다. 일견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사회문제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열망이 낳은 부작용과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정숙, 박영신과 김의철(2007)은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고등학생과 부모 세대의 시각에서 자유반응한 것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을 보면, 청소년(45.4%)이든 성인(29.2%)이든 모두 자녀양육 및 교육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녀와의 갈등이나 자녀 건강의 문제 또는 교육의 어려움과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는 등의 반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생활에서의 제약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는데, 개인의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여가활동의 시간이 부족해진다든가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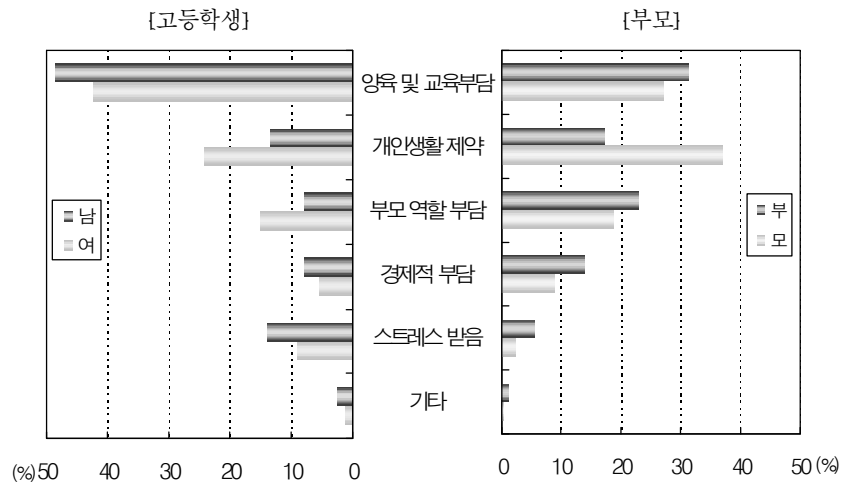


그림 3.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 개인적인 면

출처: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2007). p.337.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성인 중에서도 여자들은 특히 개인생활 제약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또 육아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연령집단에서 개인생활 제약의 요인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요인 외에도 부모역할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중요하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현상이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또한 그것이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자녀 출생 후 대학교육까지 자녀당 2억 3,199만원의 자녀교육 위주의 양육비가 평균적으로 필요하다(조선일보, 2007, 10, 17)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대단한 부담일 것이다. 결국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절대적 기대와 헌신 및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할 정

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순된 현상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성취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교육적 성취의 결과 육성된 인재들이 경제적인 성취를 주도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경제적 성취의 세계도 성취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메모리 분야의 세계 시장에서 8년 동안 최고의 놀라운 성취를 달성(조선일보, 2007, 10, 24)하는 결과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성장 그 이면에 반대급부처럼 존재해 온 또 하나의 현실을 만나게 된다. 예컨대 현재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에 대한 진위가 공방 중(중앙일보, 2007, 11, 27)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의 진위에 관계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현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의 특정 기업만의 문제라기보

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눈감아진 관례적 현상이 표면에 드러난 하나의 예이다. 달리 말하면 이 또한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성취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내용들

이상에서 한국 사회 교육성취 현상을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학업성취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 사회 속에서 검증된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업성취 결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성과라면,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성취의 그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교육적 성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분야에서의 성취 등이 한국전쟁 이후 60여년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도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매우 윤택한 국가의 위치에 있었는데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훨씬 비참한 여건에 처하게 된 과거의 버마와 지금의 미얀마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대단한 성공 신화를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별써 오래 전에 OECD에 가입이 되고 이제는 2만불 시대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러한 놀라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된 한국 사람들의 교육적 성취, 그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한국 사람들의 심리 특성이 무엇인가에 이 글은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가 이루어낸 성취의 핵심 동력이 교육적 성취였다는 사실

에 단순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성취의 일정 부분 기여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적 성취의 중요성과 기여에 주목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교육적 성취현상을 이끌어낸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결국 모든 문화적 현상은 그러한 문화현상을 창조 유지 전달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성취현상을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을 함에 있어 성취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인적환경인 부모, 더불어 친구 및 교사의 영향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적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영향의 요소들이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측면에 대한 관심에 보다 집중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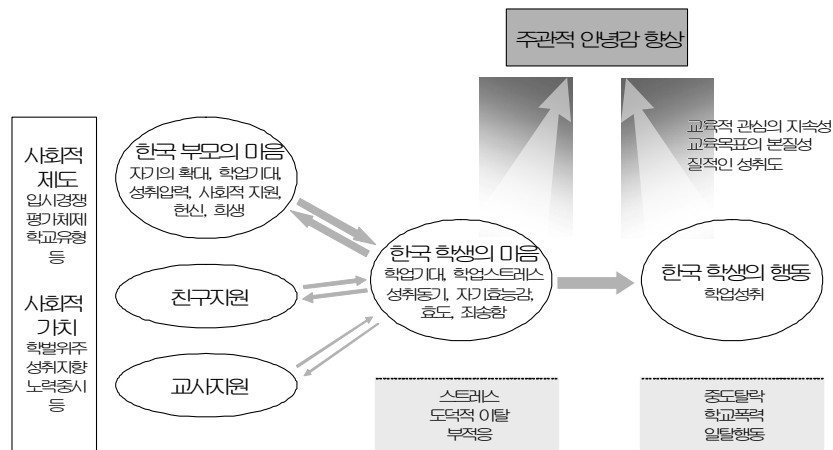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육적 성취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및 학업 성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학생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성취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한국 부모와 자녀 마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어떠한 특성

을 갖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자녀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의 관련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성취를 이해하는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취의 근원으로서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를 검토하기로 한다. 자녀 학업성취의 역동적 과정에서 부모자녀간의 토착심리가 어떠한 기제를 하는지를 규명해 본다. 넷째, 부모 외에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와 교사의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토대하고 있는 생각의 흐름과 기본적인 틀을 정리해 본 것이 그림 4이다. 비록 그림 4의 각 요소들을 이 글에서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전체 틀 속에서 각 내용들을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맥락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이 글

의 전반적인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으로서 학습자는 사회적 가치의 영향을 받으며,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매우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학교환경에서는 친구와 교사의 지원 영향을 받으며, 성취와 관련된 마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헌신적인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부담감과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는 효도의 정신,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학업에 대한 기대와 같은 마음이 학업성취행동에 몰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물론 반대로 학업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학교 부적응 또는 중도 탈락, 심지어는 심각한 일탈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늘진 부분들도 많이 발생된다.

그런데 학업성취가 상대평가체제 내에서의 점수라는 제한적 의미로서의 성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적 목표의 본질을 성취하기 위한 질문을 계



속 던져가는 과정은 목표를 향한 방향감 확보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 자녀의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진정한 교육적 성취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이 글의 결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교육에 몰입하는 한국 사람들, 그 심리적 근원과 기제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마음

최근 네덜란드의 전국 고등학생들이 이틀간 거리에서 동맹파업 시위를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하게 벌이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보도(조선일보, 2007, 11, 27)된 바 있었다. 네덜란드 고교생들은 연 1,040시간씩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쓸데없이 오래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의 모든 학부모와 고등학생들은 참 세상이 넓고 문화가 다양하며 이렇게 사회마다 사람들의 행동이 다를 수 있구나 생각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떠한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아침 자율학습과 저녁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명목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시간을 합하면, 학년과 학교에 따라 물론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1년에 기본적으로 수 천 시간을 학교에서 학습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학교의 시설이 선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여름에는 땀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가며,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의 반복을 하루에 15시간도 거뜰히 해 내는 것이다. 연 1,040시간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네덜란드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한국의 인문 고등학교에 와서 학교생활을 직접 체험해 본다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지옥훈련이라고 느낄 것이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습시간뿐만 아니라 하교하여 개별적인 과외나 학원 강의 등,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학업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한국 학생들이 이러한 학업에 대한 참여, 더 나아가서 몰입이 가능한 것인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분석한 결과는, 그러한 궁극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5의 왼쪽에 IMF 시대 이전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한 결과와, 오른쪽에 IMF 시대 이후에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학업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기에서 학업이란 성적이 향상되었다든가,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검정고시나 편입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의 합격과 같이, 모두 학업성취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물론 학업 이외에도 자기개발, 친구 및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과 관련된 응답들도 있었지만, 학업성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두 연구에서 답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자유응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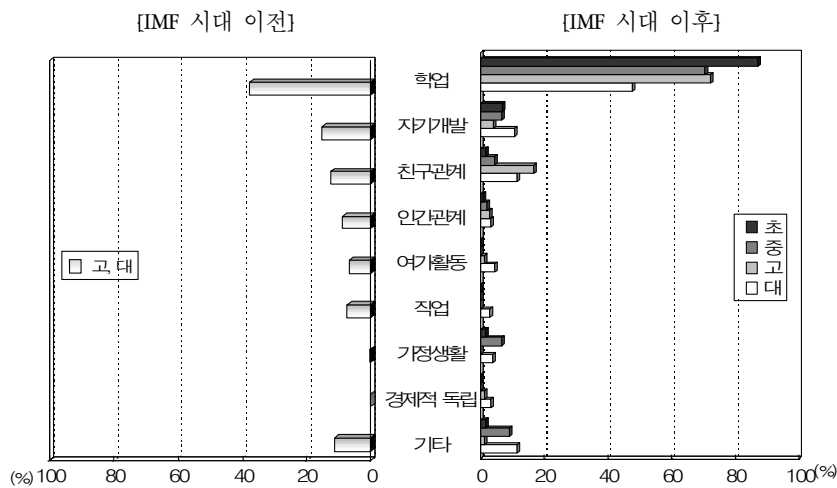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학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출처: 김의철, 박영신(1998);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2).

의 성공적인 사건으로 학업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취를 위해 진심진력을 다하는 성취추구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대해 뿌리 깊은 애착이 있으므로, 그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쉽다. 왜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4가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사회화과정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화가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 가정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교사나 친구로부터의 영향이나 사회의 영향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학업성취를 가장 자랑스럽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학업에 몰입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그것을 추구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결고리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초, 중, 고, 대학생의 귀인양식을 비교한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1997)에 의하면, 모든 집단에서 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 외집단영향의 6개 변인 중에, 노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노력이나 인내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한국 학생들은 어떤 일에서든 성취를 위해 노력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력이나 인내 등을 포함하는 그러한 자기조절은 일종의 자기수양과 같은 미덕으로 인정

되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andura(1997)는 인간이 행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구인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립(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8)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 건강 운동 조직 등 다양한 영역들에서 검증된 연구결과들을(박영신, 김의철 역, 2001) 폭넓게 밝혀왔다. 이와 같이 경험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기효능감 구인의 하위변인 중에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있다.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에서도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학업성취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여기에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보면,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분발할 수 있느냐’는 내용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의 의미를, ‘다른 흥미있는 일이 있어도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느냐’는 내용은 학업성취를 위한 인내심의 의미를, ‘학습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느냐’는 내용은 자기관리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Bandura(1997)가 제안한 자기효능감 구인 중에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개념을 한국 학생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데 활용해 본다면,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위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매우 중요한 수단적 가치로 동시에 목적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를 위한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음으로써, 성취추구 행동에 대한 지속성과 몰입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며, 노력에 가치를 둔다는 사실까지는 위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가치인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일인가?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목표의식을 검토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결과에 의하면, 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의 네 가지 가치 중에서 세 집단 모두 가정화목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정의 화목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연구(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가 있다. 자유응답을 질적으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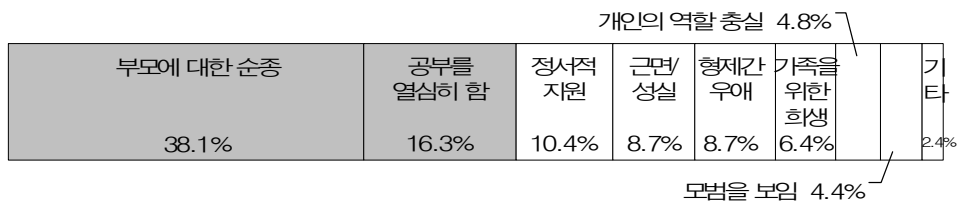


그림 6.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할 일: 자녀의 시각

출처: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2003). p.192

석한 결과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여러 가지 반응 범주들이 정리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응답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함이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자녀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본인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자녀들이 순종을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업에 성실하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마음을 위에서 제시한 지엽적인 몇 개 연구에 의해서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마음의 근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 학생들의 성취동력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보다 섬세한 연구설계에 의한 검증이 누적적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 부모의 마음

위에서 우리는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도 매우 높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석사 박사와 같은 대학원 졸업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긍정

적인 방향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과잉 교육열은 때로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도 불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한 반당 최대 적정 인원은 35명이지만 입학예정자가 50명인 사태가 발생(YTN, 2008. 1. 28)했다. 인기학교에 대한 위장 전입은 이미 오래동안 우리 사회에서 반복된 현상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을 감행하는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오직 자녀교육에 몰입한다.

이렇게 자녀교육에 전념하는 한국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녀교육이 어떠한 의미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결과가 있다. 한국 성인들이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는 가정생활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가정은 삶에서의 성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정리한 결과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IMF시대 이전에 고등학생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8)에 의하면, 그림 7의 왼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교육’과 ‘자녀의 발전/출산’이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핵심적인 의미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7의 오른쪽에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으로 자녀교육/자녀발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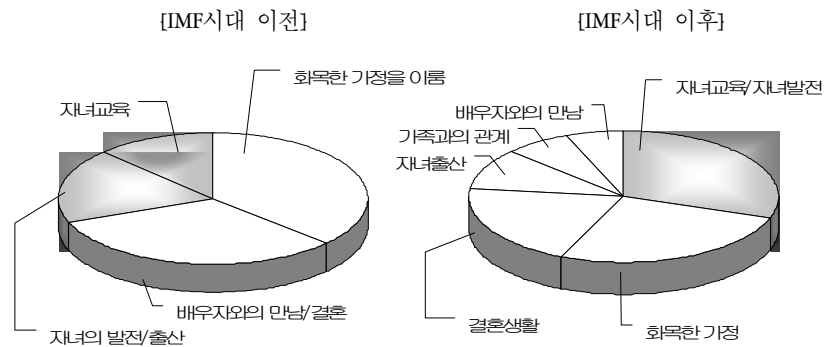


그림 7. 한국 사람에게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4a), p.21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성공 요인으로 자녀교육의 성공이나 자녀의 발전을 핵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공은 결국 부모의 성공과 같이 확대된 자기(김의철, 박영신, 2006a; Kim & Park, 2006b)로 받아들여지고, 이와 같이 확대된 자기로서의 자녀가 무엇보다 교육적인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정의 성공이고 부모의 만족스러운 사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밝혀진 결과들은 한국 사람의 가정생활에서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기제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정생활에서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지원하는 그러한 강한 교육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 성인들에게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자유반응하게 했을 때, 행복한 가정이라는 응답이 43.1%로 거의 반에 가까운 매우 높은 비율(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한

국 성인들이 미래에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행복한 가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양육, 자녀/남편의 성공, 가족의 건강, 결혼/재혼, 자녀의 교육적 성취로 구성되었다. 결국 한국 성인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잘 성장하여 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미래를 성취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내에서는 매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자기 미래 삶의 가장 원하는 성취가 자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 성인들은 자기 개인의 성공보다는 자녀의 성공이 바로 자기가 가장 희망하는 성공이다. 즉 자녀는 자기의 미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한국 사회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풍을 일으키는 마음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인들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들이 있다.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에 의하면 가족을 위한 희생이 거의 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근면/성실, 개인의 역할 충실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학부모와 교육자를 표집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연구결과(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이외에 의견존중/대화, 개인의 역할 충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그림 8의 결과로 미루어 한국 성인들의 경우에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과반수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들도 가정의 화목이 사회봉사, 자아실현,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활목표(김의철, 박영신, 김명인, 이건우, 유호식, 20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 자유반응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6a)에서도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 범주는 화목한 가족관계였다. 여기에서 화목한 가족관계란 가정의 화목, 원만한 가족관계, 가족간의 사랑과 배려와 이해, 가족간의 대화, 가족의 행복, 가족간의 믿음, 자녀양육과 교육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그림 8을 보면, 한국 성인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그림 8 참고)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성인들에게 가장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는 자녀교육 및 자녀의 발전(그림 7 참고)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결과들과 결부하여 볼 때, 한국 성인들이 왜 그렇게 자녀교육에 희생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지 심리적 역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부모와 자녀 마음의 상호작용

이상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한국 청소년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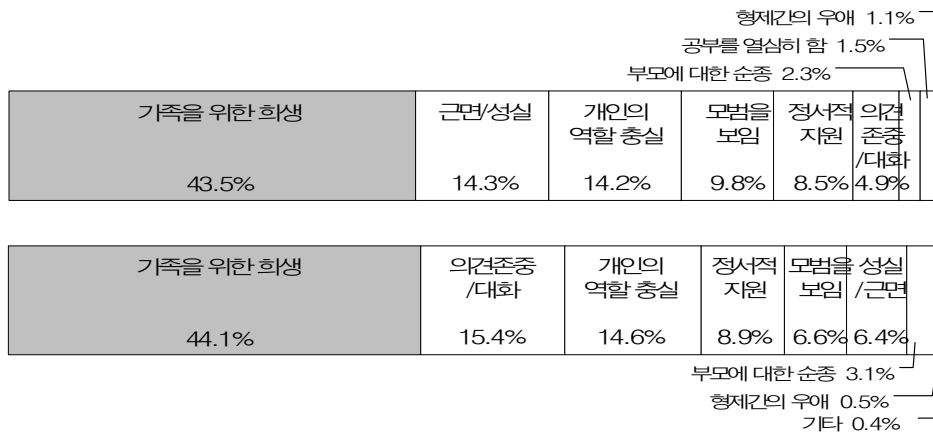


그림 8.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할 일: 부모의 시각

출처: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2003). p.192, 최중숙, 박영신, 김의철(2003). p.193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각각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학업성취라는 결과가 저절로 산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보았을 때 고유한 심리적인 기제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자녀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와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 성취의 근원으로서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녀 성장과정을 통해 본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한국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만나서 부딪치며 역동적으로 움직여 학업성취라는 결과적인 산물을 만들어 내는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9는 초 중 고 대학생 시기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어떠한가를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0)한 결과로부터 일부 변인을 추출하여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응답자들은 4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 변인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에,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전혀 아니다’와 ‘약간 아니다’ 사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매우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성취압력은 매우 높고, 이에 비해 무관심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초 중 고 대학생 시기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의 부모들 경우에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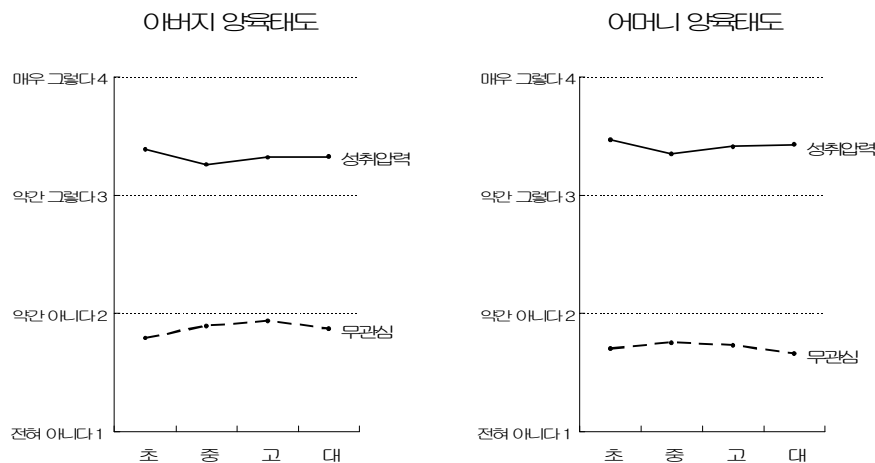


그림 9. 청소년기 부모양육태도: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0).

어린 아동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서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는 자세로 양육하는 부모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림 9의 결과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부모가 그렇게 응답한 결과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대한다고 응답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자녀가 이렇게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함으로써 자녀들의 심리와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심리와 행동의 주체인 자녀에게 지각된 세계는 중요한 것이다. 둘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 경우, 즉 소년원에 가 있는 경우나 또는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사회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며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가 양육하는 태도에 대해 반응한 결과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청소년 모집단을 표집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가정환경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셋째, 그림 8에 제시한 결과는 특정 개인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아니다. 즉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을 횡적으로 표집하여 집단간의 비교를 시도한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비교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한계, 즉 네 집단이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 집단간의 차이일 수 있는 외생변인들이 작용하며, 네 집단간의 차이를 개인의 실제적인 발달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횡

단자료 표집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 집단간의 드러나고 있는 그림 9에서의 공통적인 결과는, 한국의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특별히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동기가 어떠한지를 양육태도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다.

과연 종단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였을 때 어떠한가?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종단적 추적을 통해 살펴본 결과가 있다. 그림 10에서 첫 번째 꺾은선 그래프는 첫 번째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같은 지역의 2개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961명을 표집하여,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흩어진 7개 학교로부터 856명을, 중 3시기에는 694명을 표집한 결과이다. 694명의 학생들이 광역시 전체의 모든 고등학교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수소문하여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질문지를 실시할 수 있었던 표집 대상은 489명, 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총 320명이 표집되었다. 이와 같이 종단적으로 추적된 최종 320명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지각했는가를,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 상에 표시한 결과가 그림 10의 첫 번째 꺾은선 그래프이다.

한편 그림 10에서 두 번째 꺾은선 그래프는 앞의 꺾은선 그래프에서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때 표집된 2개 학교 전교생 961명에다가, 다른 4개 초등학교 전교생 1,012명을 추가하여 총 1,973명 중에서, 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종단적으로 추적될 수 있었던 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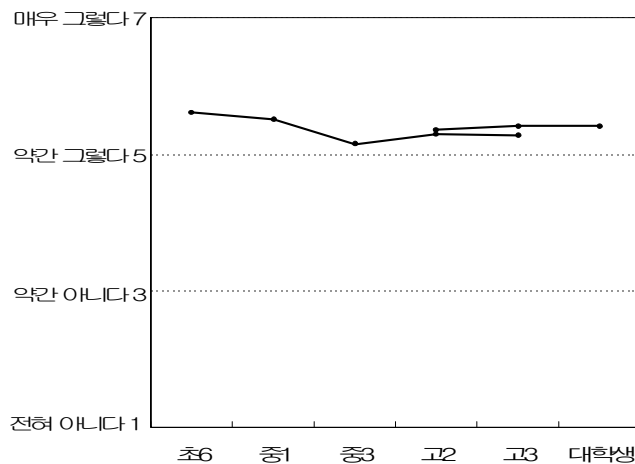


그림 10. 청소년기 부모 사회적 지원의 변화에 대한 종단 분석
출처: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김영희, 최중숙, 함병미, 임미향(예정).

명 중에서 대학교로 진학하여 대학생이 된 최종 242명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고2에서 고3을 거쳐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지각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꺾은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생 시기까지 9년 동안 종단적으로 추적한 그림 10을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매우 그렇다’에서 ‘약간 그렇다’ 사이의 값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세 가지의 하위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청소년 초기에서 청년기까지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도 격려를 받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받으며 경제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강력한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

앞의 그림 9에 제시했듯이, 한국의 부모들

이 자녀를 양육하며 어릴 때이든 성장해서이든 끊임없이 성취에 대한 높은 압력을 가한다고 자녀들이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9에 제시한 성취압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박영신, 1989)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첫째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 학업성취와 관련된 높은 기대 및 관심에서 기인하는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예컨대 ‘나의 학교성적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나의 학교 공부에 대해 자주 물어보신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둘째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전반적인 성취와 관련된 것이지만 결국은 학업성취와 무관하지 않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들이다. 예컨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세운 목표를 완성하도록 격려하신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두

고 여기에서 몇 가지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성취압력과 그 외의 부모양육태도들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 기타 양육태도 변인 중에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부모의 애정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초 중 고 대학생 각각의 집단에서 자녀들의 성취동기가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 어떠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다양한 부모의 성취압력을 포함한 부모양육태도 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1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그 외의 부모양육태도 변인으로서 부모의 애정 및 부모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 변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박영신, 김의철, 2000)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이나,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같은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나 사회적 지원과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정적인 상관이나 그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자녀들이 부모가 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심 및 성취지향적인 압력을 준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기에 대해 더욱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부모가 자기에게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성취압력이 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자기가 부모와 갈등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도 높았으나, 그러한 정적인 관계의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부모의 애정이나 지원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모가 성취압력을 가해서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부모의 애정이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한국 부모의 성취압력은 양날의 칼과 같이 부모의 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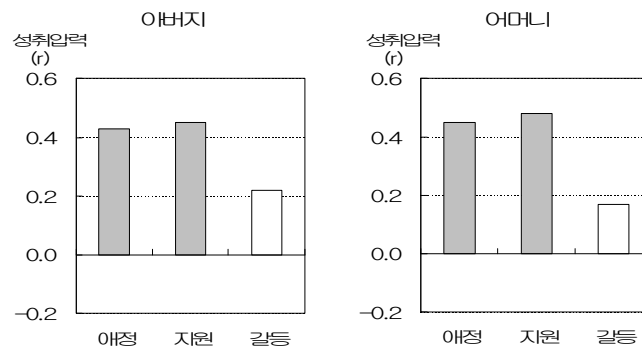


그림 11. 부모의 성취압력과 애정, 사회적 지원, 갈등의 상관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0).

관심 기대 지원과 더불어 감사하게 받아들여 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결핍된 마음을 통해서도 시사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층 면접과정에서 그들은 밤늦게 귀가하거나 가출해도 무관심한 부모를 매우 원망하고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4b). 자신들의 자율을 인정해 주어서 자유롭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성취압력을 간섭이나 부정적인 압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기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독특한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양상(박영신, 김의철, 2004a)

과도 유사한 유형을 나타낸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원처럼 높은 정적 관계가 아니고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나친 성취압력이 자녀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지원과 결부되기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성취압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의 효과를 가질 것인지 가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나친 성취압력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균형있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그림 11에서는 부모 양육태도들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면, 그림 12는 자녀의 성취동기가 부모 양육태도들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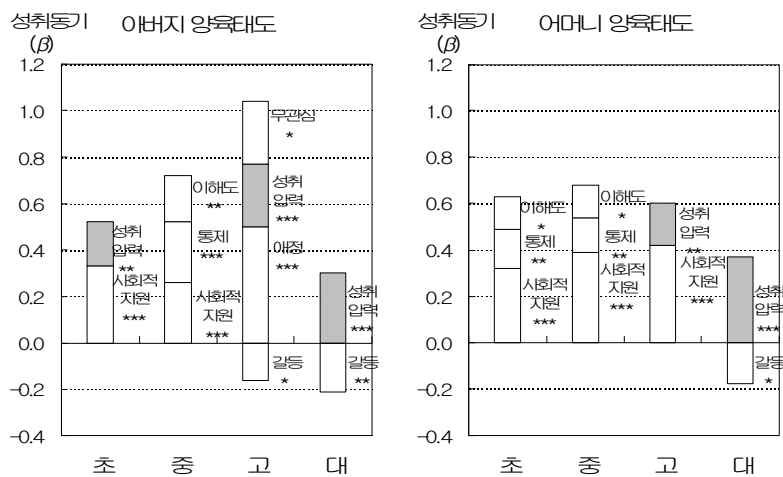


그림 12.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성취동기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0).

는지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각 양육태도 하위변인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변량의 정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변량이 동일하지는 않다. 또한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있지만, 자녀의 성취동기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중요한 핵심변인들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에서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아버지는 성취압력이, 어머니는 통제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향이 일치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원이 가장 큰 설명변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통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의 순서로 투입되었다. 고등학생의 성취동기는 아버지의 애정에 의해 설명변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성취압력과 무관심이 투입되었으며, 아버지와의 갈등은 부적인 값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갈등이 적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설명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동일한 패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에 가장 설명력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부모와의 갈등은 성취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12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녀가 성장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부모와의 갈등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애정이나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외에도, 초등학생에서 아버지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 향상에 기여하는 변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자녀의 학업성취와 일탈행동 및 생활만족도와 같은 변인들을 고등학생 표집으로 요인분석하였을 때의 요인구조가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에 아버지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애정 그리고 자녀의 성취동기와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와 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요인 2에 부모의 무관심과 적대 및 거부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자녀의 일탈행동과 함께 분포하고 있다.

그림 13의 요인분포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 및 나아가서 자녀의 학업성취와 동일한 요인구조에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변인이 요인 1에서 같은 요인부하량의 방향을 보임으로써,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고 나아가서 학업성취가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에서 밝혀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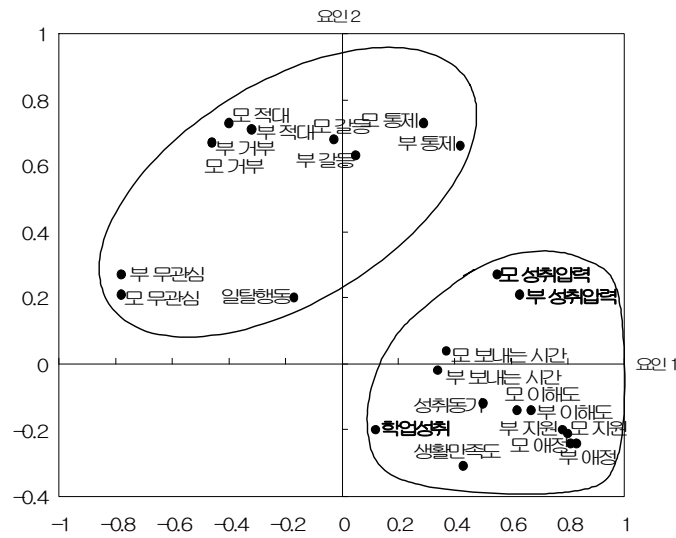


그림 13.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인 요인 분포도: 고등학생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0).

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과정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부모양육태도 변인들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밀접히 교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취의 근원으로서 한국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양육태도라는 표현방식을 통해 자녀의 마음과 나아가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위에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그림 11, 12, 13 참고)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성취를 향한 의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학

업성취라는 성취행동의 결과를 유발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는 교육심리분야에서 구체적인 변인들을 통해 수많은 검증을 거친 매우 보편적인 법칙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와 자녀 마음의 작용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갖는 독특한 심리적 기제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동안 누적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한국인들이 성취와 관련하여 독특한 심리적 특징을 갖고 있음(Park & Kim, 2006; Kim & Park, 2008)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초점을 두고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 그림 14(박영신, 김의철, 2004a)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강한 성취압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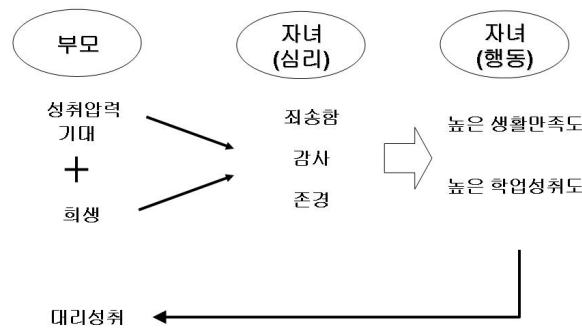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의 역동적 과정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4a).

매우 높은 기대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한 강한 성취압력만 자녀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고 헌신적으로 임한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자녀양육태도로 드러나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마음과 나아가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죄송함과 감사함 또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베푸는 즉시 자녀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철이 드는 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다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의 마음은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탄탄한 사회적 지원을 받은 자녀들은 생활에서의 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도 높다.

자녀의 높은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리적인 성취경험을 하게 하는 결과들이다. Kim(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양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독립적 자기와 달리 한국 부모자녀관계에서 관계적 자기의 발달이 이러한 대리적인 성취경험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가 아니라 비록 성장하였어도 자녀와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가 본인의 성취나 다름없는 확대된 자기의 성취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림 14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과학적인 검증을 하여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존경심이 얼마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를 자유반응형식으로 응답하게 하였을 때(김의철, 박영신, 예정),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희생하심이 가장 높은 반응 비율을 보였다. 특별히 어머니가 희생하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반응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아버지에 대해서보다 높았다.

앞에서 검토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과 그림 14에서 제안한 역동적 과정들을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성취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을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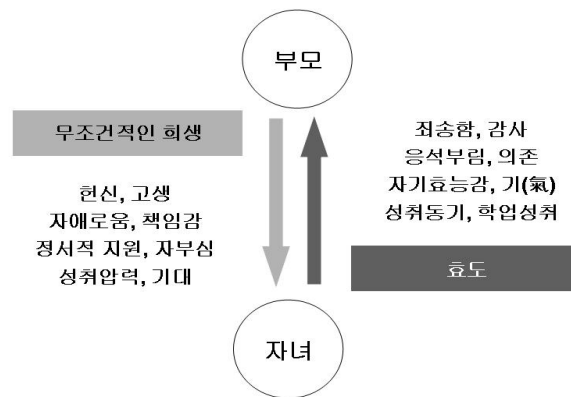


그림 15. 개념모형: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성취에 대한 토착심리적 접근

출처: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2003).

그림 15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희생은 자녀를 위한 헌신과 고생의 감수를 채택하게 한다.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자녀에 대한 자애로움과 정서적 지원과 같이 따스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의 학업성취와 나아가서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향한 욕심에 가까운 높은 기대를 갖고, 이렇게 높은 기대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한 성취압력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자녀가 성취를 이루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게 되는 자부심은 대단하여, 자녀에 대한 자랑으로 한국 부모들은 삶의 에너지를 얻는 듯 만족감이 크다.

부모의 희생을 지각하게 되는 자녀는 부모에 대해 효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의 효도가 전통 사회에서의 효도와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며 시묘살이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풍습이 없어졌다. 그러나 시묘살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효도의 정신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효도의 기본 정신은 문화적으로 뿌리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존댓말을 하며, 아버지에게 안마해 드리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움으로써 효도하는 행동을 한다고 스스로 지각(Chang, Park & Kim, 2007) 하고 있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녀의 효도에 대한 인식을 초등학생의 부모(Chang, Park & Kim, 2007) 및 초·중·고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Jung, Kim & Park, 2007) 하였을 때, 자녀가 학업에 충실할 때 부모들이 가장 감동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하거나 순종할 때, 부모들은 그것을 효도 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자녀가 공부를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잘 할 때 그것을 바로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해 헌신적으로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 한국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전달되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자녀들은 과거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밤낮으로 의관을 갖추고 부모에게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공부를 잘 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도로 내면화하고 있다.

그림 15에 제시되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에 대해 죄송함과 감사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부모의 자애로운 양육태도 앞에서는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단순히 심리적 격려를 받고 기가 사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과 기대는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나아가서 학업성취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증진시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등이 밝혀진 바 있다.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의 관계(박영신, 김의철, 2003)만이 아니라, 그림 15에 제시한 다양한 심리적인 상호교류와 메카니즘의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철저히 검증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취과정에서 친구와 교사의 영향

이상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마음,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리고 부모와 자녀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몰입하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근원과 기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여기에서는 부모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에게

매우 의미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와 교사가 학업성취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부모, 친구, 교사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와 나아가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횡단비교를 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가 있다.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비록 부모의 사회적 지원만큼 설명력이 큰 것은 아니었으나, 초 중 고등학교 집단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해 간접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비록 약하나 자기효능감에 대해 영향이 있었지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었으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이러한 영향력마저도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고등학생 집단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도 의미있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에 비해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통한 학업성취 증진 과정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낮은 변인임을 보여준다. 부모가 교사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더욱

영향력 있는 존재임은 상식적 차원에서 수긍하기 쉽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지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친구보다도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나 학업성취 증진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학교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업성취 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부각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친구의 사회적 지원보다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학업성취과정에서 영향력이 낮은 변인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횡단적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표집된 횡단자료의 특성이 외생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에 명료한 답을 제시하는 증거가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서부터 동일한 학생들을 종단적으로 표집하여,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와 대학생 시기에서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 및 관계효능

감과 학업성취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임미향, 예정)가 있다. 종단자료를 경로분석한 결과가 그림 1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6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에 모두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었으나,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는 의미있는 영향이 없고 관계효능감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에 관계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영향력이 없고,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학업성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업성취와 더불어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나,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관계효능감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학생 시기가 되었을 때는 동일 시기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의해 학업성취가 여전히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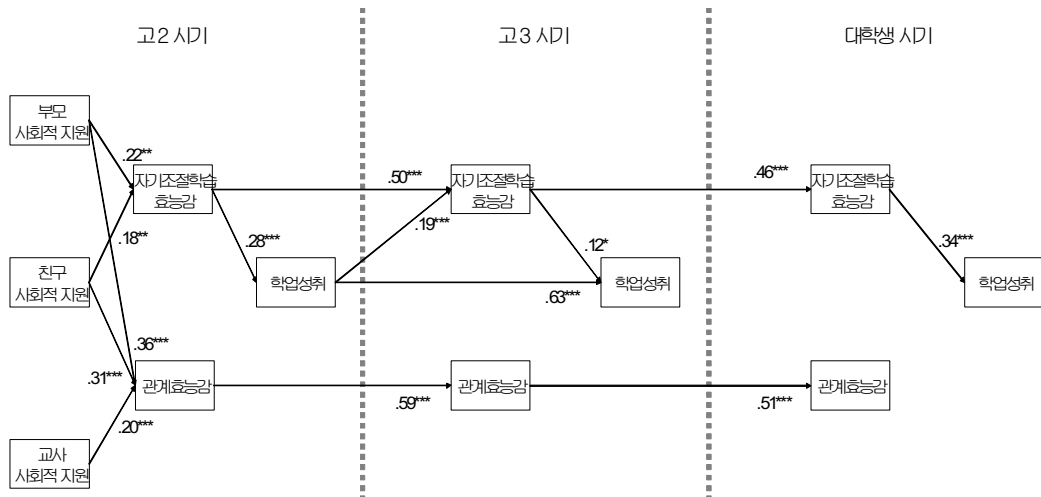


그림 16. 친구와 교사가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종단자료분석
출처: 김의철, 박영신, 임미향(예정).

영향을 받았으며, 관계효능감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성취에 의해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단자료를 분석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다양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의 친구 사회적 지원과 교사 사회적 지원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 과정에 이러한 친구와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어떠한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횡단 분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서와 비록 구체적인 변인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결과가 일관성있게 밝혀졌다는 점이다.

즉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비록 부모의 사회적 지원보다는 약하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해 의미있는 간접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의미있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인 지원은 실제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그 뒤에 고등학교 3학년 시기나 대학생 시기에도 결과적으로 학업성취 향상에 작용하지 못하는 변인으로서, 학업성취과정에서 역동적인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횡단자료 분석에서와 일치하는 결과인 것이다.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관계효능감에는 의미있게 기여하고 있지만, 관계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대해 직접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

사의 사회적 지원이 학업성취에 대해 간접효과를 갖지 못한다.

횡단분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과 중단분석(김의철, 박영신, 임미향, 예정)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학생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그림 16의 결과는 왜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업관련 효능감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그러한 이유에 대한 검토는 남아있는 과제라 하겠다.

횡단분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미약하나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의미있는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학생부터 그러한 영향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아동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학업성취와 관련된 영향력을 감소하게 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작지만 존재하다가 중학교 이후부터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아무리 연수를 많이 받아서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갖고 교직에 임해서 본인 스스로는 교직에서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지각한다(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허희숙, 예정)고 해도, 결과적으로 교사

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 교사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 실제 교육적인 효과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육적 성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그림 16의 결과는 교사들이 학습지도와 관련된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상호교류를 효율적으로 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효능감과 더불어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효능감이 증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개인의 심리와 행동은 소속된 조직이나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개념모형(김의철, 박영신, 1999)이 제안된 바 있다. 사회적인 영향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로는 지역(도시, 농촌 등) 사회풍토,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급격한 가치변동, 세대차, 유교 영향, 인터넷 확산, 청소년 유해환경(유흥업소) 증가, 이혼율 증가, 경쟁적 대학입학시험 등 무수하다. 사회화과정을 통한 사회적인 규범과 의무가 관계 양식(Kim & Choi, 1994)만이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학업성취행동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또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과 제도 정책 등에 의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러한 여러 변인들에 의해 한국 학부모

나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관심이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회적인 가치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시사를 해 주는 외국 사례가 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연 1,040시간으로 하는 규칙(조선일보, 2007, 11, 27)을 세운 네덜란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떠한지를 검토해 보자. 총 57개국이 참가한 PISA 2006에서 읽기 영역 8-13위, 수학 영역 5-8위, 과학 영역 6-11위로 모두 국제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입하느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040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PISA 2006에서 종합평가 1위(읽기-2위, 수학-2위, 과학-1위)를 보인 핀란드의 경우,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에 매우 순종적인 풍토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각 사회 특유의 문화적 가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 사회 전반의 학력 중시 풍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부모의 교육열을 가열시키고 있다. 한국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높은 학업성취에 대해 일치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성이 학업성취 추구의 심리를 더욱 강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공부를 중요시하며 학업에 성취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단지 지금 사회의 추세가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유교문화적 전통가치와 연계되

어 문화적으로 그 뿌리가 깊다(박영신, 김의철, 2002)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정책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그림 17은 한국 사회 정치변동이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예로 제시해본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기존의 교육정책과 대비되어 2008년 3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지향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최근까지 기존의 정부에서는 복지를 목표로 평등과 분배를 위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정책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관리시스템이 주를 이루었고, 수십년동안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3불 정책(보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이 단호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새로운 정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선호하며, 행정부서의 관리감독보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자율을 상당부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에서도 정부가 국가의 교육전반을 관리하기보다,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교육청

에,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역할을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도 다양화하여, 자립형 사립학교의 수도 대폭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상당부분 실천함으로써 사실상 3불 정책이 약화될 것이다.

이 글에서의 관심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예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한국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는 대단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및 그들의 부모들은 입시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교 입학시험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까지도 일대 변혁이 불어닥칠 수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점은 교육정책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같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물론 2008년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현상과 구성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될지 부정적으로 될지는, 아직 새로운 정책을 실시도 안하고 겨우 기본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모른다. 기존의 정부에서는 대학에 자율을 주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가 급증한다는 입장이라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주고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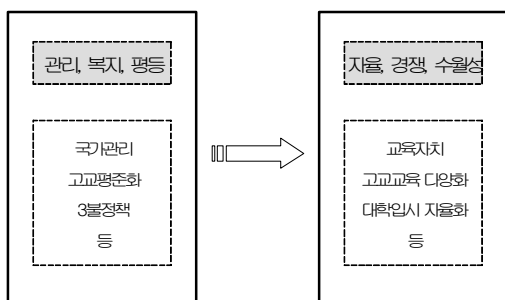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정치 변동의 교육적 영향 예:
2008년 이후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

데 정부가 이를 막았다며, 교육이 취약한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정원의 30%에 장학금을 주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평등을 강조해 온 기존의 정부와 상반(조선일보, 2008, 1, 15)되는 입장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사회 풍토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사람들도 개인들의 집합이며, 정책의 입안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직과 문화를 구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조직과 문화에 의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각각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이 있다. 결국은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실천하고 소화해 낼 수 있을 때, 그 교육정책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학업성취,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고등학교만이 아닌 대학교까지 교육적 관심의 지속

한국 중 고등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PISA나 TIMSS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의 국제평가 순위는 중등학교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세계 우수대학 순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보다 교수들의 연구실적 위주이므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와는 평가

기준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에 비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실제로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은 과거 1970-80년대 학생운동이 팽배했던 시절에 비해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보다 대학교에서의 학업에 훨씬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기간동안 학문 성취보다는 졸업 후의 취업을 위한 학원 공부나 고시 공부 등 진로준비에 바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학업성취보다 진로준비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졸업 후의 취업현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중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 대학입학시험을 목표로 학업성취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지만, 일단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학생들도 해방감 속에서 느슨해지고 부모들도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맡기고 일종의 방치와 같이 학업성취에 대해 무관심한 현상들을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적 기대와 교육적 성취를 위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적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미 익히 알려져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한국의 많은 가정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의 교육적 지원과 관심이 대단히 높는데, 대학생이 되면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육적 성취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위기를 관찰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히 대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고등학교 시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일단 대학교에 입학만 하고나면 그 이후부터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자녀를 믿고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하라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대학교 입학에 위해서 고등학교 단계까지 전심전력을 다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부모로서 학업성취를 위한 뒷바라지와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그동안 지칠 대로 지친 뒷바라지에서 해방되는 심정으로,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 압력의 끈을 놓아버리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든 자녀든 대학교 입학시험까지 전력투구하고 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경쟁적 학업성취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드는데도 모른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어떠한가를 시사하는 연구가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신뢰의 원인을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6b)한 결과가 그림 18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신뢰의 하위변인들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를 신뢰한다는 반응은,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이 이질집단이고, 중 고등학생은 동질집단이며, 대학생은 이질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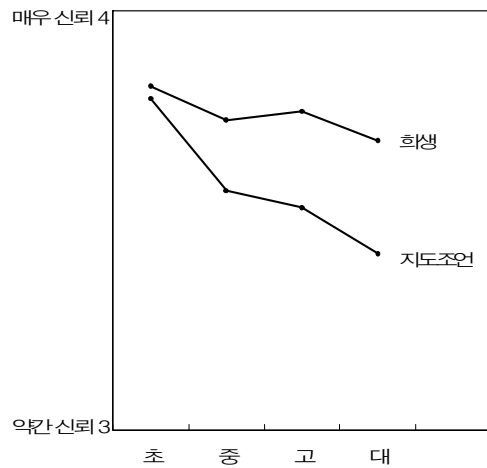


그림 18. 부모에 대한 신뢰 원인으로서 희생과 지도조언: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2006b).

으로 나타났다. 그림 9를 보면, 부모가 희생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생각은 초등학생 집단이 가장 높고, 중 고등학생 집단이 약간 낮아졌다가,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도조언해 주시는 부모를 신뢰한다는 반응도 사후검증에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각각 이질집단으로, 중 고등학생은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18에서 집단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도조언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생이며, 대학생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국 학생들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희생과 지도조언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예측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초점은 이러한 부모의 희생과 지도조언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둘 다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다가 점차 하강하여 대학생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중에서 대학생 집단이 부모의 희생과 지도조언에 대해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부모의 교육적 열의와 관심이 저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희생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지각된다는 사실이 교육적 성취에서 중요한 연관을 갖는 이유는, Park (2002)이 지적했듯이 부모의 희생은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의 심리적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학업성취의 엔진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희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학업과 관련된 표상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에 제시한 한국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된 사회적 표상을 연구한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자유반응한 결과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한 내용이 그림 19의 왼쪽에 제시되어 있다. 초 중 고 대학생 전체 반응을 정리해 보면 학업성취(65.1%)와 관련된 반응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인간관계, 자기개발, 가정생활, 경제적 독립, 직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업성취가 한국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공의 핵심요인 인지를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에 대해 자유반응한 결과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한 내용이 그림 19의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다. 초 중 고 대학생 전체 반응을 보면 학업실패(46.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 실패, 자기조절 실패, 없음, 가정생활 문제, 경제적 문제, 직업 실패, 경제적인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실패경험들 중에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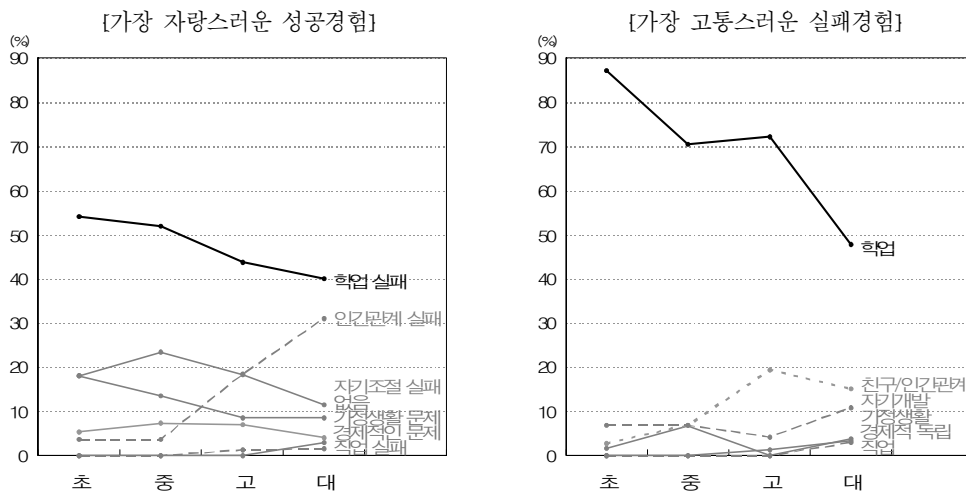


그림 19. 한국 학생의 성공 및 실패경험: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2);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5).

업에서의 실패가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장 현저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성취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가장 자랑스럽거나 또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점은, 이러한 학업성취의 비중이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의미있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학업에서의 성공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초 87.1%, 중 70.5%, 고 72.2%, 대 47.8%)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에서의 실패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응답하는 비율(초 54.1%, 중 51.9%, 고 43.7%, 대 40.0%)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감소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학업문제가 한국의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성취경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 초등학교 때에 가장 높고, 점차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림 18과 그림 19를 제시한 이유는 한국 학생들이 중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업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세계 상위권의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다가, 대학교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심리적 변화를 경험과학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결과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눈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실제적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학업을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보다 대학생 시기에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 즉 학생들에게 학업의 의미와 비중이 약해지는 결과가 단순히 학생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림 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도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자녀양육태도의 다양한 변화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의 그림 16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업성취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의 학업성취는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종단자료에서 나온 결과임을 생각해 볼 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와 대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연계성이 없고, 대학교에서의 성취 행동이 전혀 다른 메카니즘으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취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성취에만 과잉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에서 진정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적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 모두 대학입시가 학업성취의 종착점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 진정한 학문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교육적 관심이 지속될 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대학교 시기에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인 성취에서 질적인 성취로,
 학업성취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 글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성취 현상을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들로부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위에서 검토 되었다. 즉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적 관심을 지속해야 하는 필요를 지적했다. 그렇게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성취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정지하거나 대학교 단계로 진입하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서도 꾸준히 학업성취에 관심을 갖고 성취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속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육적 성취가 그러한 양적인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보다 관심을 갖고 양과 질에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은 단순히 학업성취에서의 점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학습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림 2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유반응형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어떤 스트레스 요인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단연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 2명 중 1명 이상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업 문제가 학생들에게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 대학생 경우에 비록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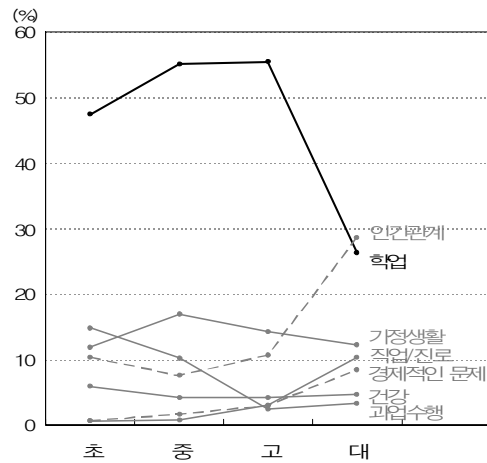


그림 20.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출처: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2002).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30% 미만이라고 하고 있지만,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더불어 다른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서, 3-4명 대학생 중의 1명은 학업스트레스를 심각히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에 관한 이러한 결과가 학생들의 대표적인 실패경험에 대한 결과(그림 1 참고)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이 학업에서의 성취를 대단히 자랑스러운 성공경험(그림 19 참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학업성취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가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 교육성취 현상의 명암 두 측면을 지적하였는데, 한국 학생들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학업성취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학업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에 문제가 있음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그림 20에서 대학생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초·중·고등학교 시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된 가장 핵심적 변화는 바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중·고등학교 시기까지는 50% 전후의 학생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경험으로 학업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시기가 되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지적한 학생이 30% 미만으로 되고 있다. 오히려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더 많다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앞의 ‘1. 고등학교만이 아닌 대학교까지 교육적 관심의 지속성’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관심이나 헌신적 태도 또는 지도조언이 고등학교 시기에 점차 감소하는 현상들(그림 18 참고)과도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얼마나(how much) 성취했느냐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어떻게(how) 했느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교육성취가 우리의 학생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교육적 성장을 이루었고 개인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획득했느냐에 관심을 갖기 보다 얼마나 양적인 점수의 결과, 예컨대 점수로 모든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는 문화에 익숙한가는 모두가 알고 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세계 40개국이 참여한 PISA 2003에서 문제 해결력 평균 550점으로 세계 1위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험문제 풀기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새로운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것을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과연 세계 1위인가에 대해 우리는 겸손한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와 연결된 맥락에서 시험문제 형식의 문제해결력과 다차원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적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손쉬운 점수에 치중된 평가는 고등학생이 대학입학시험을 칠 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거의 모든 평가에 그 기본 철학에 대한 숙고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완전히 자리잡게 된 대학교수의 업적평가 시스템도 현재는 양적인 평가에 머물고 있는 단계이다. 물론 양적인 평가의 강화가 대학의 학문적 성취를 증가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일정 분량의 양적인 축적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 질적인 수월성이 피해질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초월하여 보다 우수한 질적인 성취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왔다. 양산되는 연구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 성과의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학문적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너무 양적인 평가에만 집착하다보면, 양적인 풍요 속에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적 성취를 양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은 결국 학습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심리학회가 최근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한 질문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박영신, 2007)고 본다. 예를 들어 PISA 2006에서 읽기 영역에서 1등한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

생들보다 가장 행복한가? 우리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위의 그림 1 또는 그림 20과 같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은 읽기 시험성적은 1등이지만, 실제로 읽기를 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읽기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학습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읽기 시험의 성적 결과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해하는 학습자의 모습을 더욱 연상하게 된다. 읽기 영역에서 세계 1위를 한 것은 매우 대단한 성취이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러한 높은 성취와 더불어 그러한 성취과정을 즐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학생이 양적인 성취에만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취과정의 즐거움과 의미, 감사 등을 더불어 깨닫도록 지도해야 한다. 소위 지적 교육과 더불어 정의적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도 더불어 깨닫도록 한다든가, 외부 평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만족의 소중함도 더불어 깨닫도록 한다든가,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에 더불어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육은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학업성취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김의철, 박영신, 2006)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한국 사람들은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학업성취가 부각(그림 19 참고)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성취의 그늘과 개인들의 성취관련 스트레스 및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업이 주는 고통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과연 학업성취 자체가 삶의 질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분석들에서 학생들의 경우에 높은 학업성취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6, 1, 14)에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성인들의 경우에 학력 수준은 행복감과 무관하였다($p > .05$). 즉 초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나 현재 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 학업성취도는 행복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 집단이었으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였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증거가 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구한 결과(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5점 척도에서 3.90으로 높았다. 가족관계가 불만이나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7.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만족하였다. 물론 한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만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갖는다는 결론은 어렵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발한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는 검증된 결과와 일관된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았던 학생들이 학창시절 동안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만이 아니라, 졸업 후에 생애만족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한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의 명문 대학에서 수석입학한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김언주, 이군현, 신봉섭, 1999)에 의하면 수석자들의 생애만족도가 다방면에서 높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였을 때에도 직업에서의 성취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생애만족도가 높음을 보여 준다. 과연 이러한 논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성과들의 누적을 필요로 할 것이나, 일단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가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 ‘고 3은 왕처럼’ 부모가 절대적 지원을 제공했어도, 나중에 성장하여 만약 개인의 안락한 삶만 추구하고 만약 노부모를 돌보는 커녕 방치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교육성취나 직업성취가 인간다움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대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교육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의 설정과 확신이 중요하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 행복한가. 한국 사람들은 가장 이루고 싶은 미래 성취를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이 높았는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그토록 집착한 학업성취의 목표가 현실

적으로 달성된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감의 상당 부분이 성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허희숙, 예정). 앞에서 검토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그림 19 참고)을 볼 때 특별히 학생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획득하기 위해 학업성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취가 주관적 안녕감 획득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학업성취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 읽기와 토착심리 적용

이 글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라는 주제를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이라는 범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이러한 주제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결과는 시원한 답을 얻었다기보다 더 많은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21세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길러야 할 학력(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의 개념구조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21세기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등 많은 질문들이 야기된다.

이러한 여러 질문들이 공유하는 내용 중 하나가 시대 속에서 적정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교육받고 있는 초 중 고 대학생들

이 한국의 미래 사회를 책임져 나갈 소중한 자원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만나게 될 미래 사회는 당연히 현재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미래 한국 사회의 흐름을 한마디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녀가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높은 교육적 기대와 열의를 나타내는 것은, 한국 전통사회가 추구해온 가치이면서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과거와 달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세대별 어머니 집단간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Kim, Park, Kwon & Koo, 2005) 결과를 보면, 자녀를 원하는 이유로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는 것과 같은 관계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는 것과 심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같은 개인적 제약을 강하게 지각하였다. 자녀 양육태도에서도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유아 어머니집단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현재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자녀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각오가 훨씬 강하였다. 동시에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나 딸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도 훨씬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어머니들일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녀가치와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자녀양육의 부담이 자녀출산률 저하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기보다 새로운 현상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탄력근무제의 도입과 IT의 발전 덕분에 재택 근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활용하여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알파 맘이 증가하고 있다.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최신호에서 1980년대가 ‘수퍼우먼’(super woman·일과 육아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여성), 90년대가 ‘사커맘’(soccer mom·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주부)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알파 맘(alpha mom)’의 시대라고 보도했다(조선일보, 2007, 8, 28). 결혼한 여성들이 가정과 직업과 개인의 삶을 조화시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서, 맞벌이 부부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해결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식정보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며 교육작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교육적 성취에 관련된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Kim & Park, 2004; 2006a; 2007)에서 이러한 토착심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의 학업성취 더 나아가서 교육적 성취가 단순한 양적인 성취가 아니라 보다 질적인 수월성을 지니고, 학습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성취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본다. 사실상 외적인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의 변화 자체보다도 쉽게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토착심리가 더욱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심리가 제도나 정책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MBC 스페셜 특집(2008, 1, 19, 93회)에서는 2007년 12월 4일 PISA 2006 발표 현장을 소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3회 연속 부동 1위를 기록한 핀란드와 읽기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이 매우 상반된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가에 대해 세계 언론이 주목하였다. 즉 핀란드는 평등에 기초한 학생간 협력을, 한국은 경쟁의 원리를 더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PISA 2006에서 낮은 과학 영역의 성취가 그동안 평준화교육의 결과로 지적되면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 핀란드식의 협력적인 교육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우리 학생들의 과학성적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현재의 우리 교육시스템이 최선인 것만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문화와 사회풍토 및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심리에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사회에서 결실을 거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접목하였을 때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토양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다른 사회의 성공적인 모델을 선택하여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과연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으로서 미국을 부러워한 시절이 있었지만(이일용, 2000; 이현청 편역, 2001),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아

름다운 항의 높은 빌딩만 사진으로 본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빌딩 숲 뒤로 밤에는 노숙자 천지인 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북유럽 사회가 보장하는 이상적인 복지 모델 속에서도 여전히 우울증이나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할 이상적 교육성취의 모형은 외국 따라하기를 통해 결코 구축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 나름의 문화와 전통 관례 생활양식 가치지향 역사 등 전혀 다른 가정들이 이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핀란드와 같은 교육강국 시스템의 장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08년 3월부터 출범예정인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지속해온 교육부 관리하에서의 평준화정책이나 3분 정책의 틀보다는, 교육자치의 방향에서 고등학교 교육 다양화와 대학입시 자율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 기본적으로 자율이 강조되고 결과적으로 경쟁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Kim & Park, 2006c)를 준비하는 교육이라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통제적인 성격의 관리보다는 자율적인 체제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그리고 제안되고 있는 정책들도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짚어가야 할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

방종이 아닌 확고한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율을 책임질 수 있는 결맞는 능력의 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교육자치로 교육정

책의 방향이 변화되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입시 자율화를 실시하였을 때 각 대학들은 객관적인 공정성 뿐만 아니라, 대학 특성에 적절한 입시정책을 수립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또한 자율적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립형 사립학교나 기숙형 학교의 증가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잘못하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입시 준비체제가 될 수 있고, 사교육 열풍을 가열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질적으로 수월성 있는 교육을 학습자의 개성에 맞춘다는 원래의 목표가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경쟁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더욱 점수에 의해 줄 세워지고, 중학교 단계에서부터의 경쟁적인 상대평가와 입시제도 속에서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전인교육을 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인교육이라는

기준과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목표를 기준으로 계속 점검되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그 자체의 철학이나 이론적인 결함 때문보다는, 이해집단의 틈바구니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정책대안들이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그림 21(Kim, 2003)은 과거에 토대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금 한국 교육은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려는 시점에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제도는 기본 틀을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완성은 제도 자체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 전체의 의식을 토대로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문제만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로이 도입되는 교육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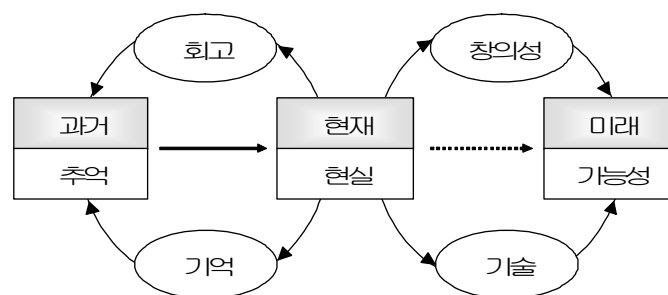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한국 교육이 함축하는 가능성과 도전
Kim(2003)

도의 시스템 속에서 그 제도가 모든 기존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미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창의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침착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사지선다형 답을 찾는 식의 사고와 태도보다는, 의미있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고와 태도를 육성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멋진 삶의 모습을 학습자 나름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라는 꿈을 꾸어 봄직하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현실에 충실하게 뿌리내려야 하며, 여기에 토착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통찰과 이해의 과정에서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현실을 초월하여, 이상과 현실을 이어나가는 작업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창조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조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망의 틀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창조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조망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가발전되는 것과 같은 신선한 에너지를 가진 학습자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당장 1점에 숨이 막히고 매일 밤 늦게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자녀를 태워 집에 데려오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학부모의 절박성 앞에서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회의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것은 학습자의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방향, 그리고 균형잡힌 인간성을 함양하

는 방향,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통한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 큰 틀에서 교육적 성취의 방향은 우리가 염원하는 미래 한국 사회의 방향과 함께 상호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 청사진에 대해, 신뢰에 기반한 사회, 효능감이 충만한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사회, 비전을 가진 사회라는 맥락에서 논의(박영신, 김의철, 2008)가 시도된 바 있다. 새 정부는 실용교육을 지향한다고 한다. 현실에 뿌리를 두는 의미에서 실용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자칫 지엽적인 실용성만 도구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로부터 소외되고 방향 감각이 약화될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을 균형 감각있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균형잡힌 인간성을 지닌 인간미있는 전인의 모습을 추구할 때, ‘미’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은 인간다움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약 교육작용에서 이러한 인간다움의 육성 부분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멀어지는 공허한 것이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 계산만을 잘 하는 학습자, 그것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을 활용하여 삶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응하며 예측할 뿐만 아니라 운택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보다 고등정신능력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간은 모든 도구나 성과를 유익하게도 해롭게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이어마이트를 발견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세계 제 1차 대전에서 무수한 생명을 빼어갈 수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세계 평화를

위해 평화상을 제정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가치 함축적 지향성과 통합적 판단력과 창의적인 해결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한 통찰력과 실천력을 가진 전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국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될 때 성공적인 전인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5).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05-5.
- 김광웅 (2006). 조기유학: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한국인간발달학회 2006 학술심포지움, 인간발달학적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의 득과 실. 1~10.
- 김언주, 이군현, 신봉섭 (1999). 대학 수석입학자 추적연구. 정책 98-13, 한국과학재단.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6a).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I): 교육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1~31.
- 김의철, 박영신 (예정). 존경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존경의 이유와 표현 및 영향.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 총서 2.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김의철, 박영신, 임미향 (예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성취과정에서 대한 중단연구: 부모,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철훈 (2001). 한국 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 서울: 문음사.
- 동아일보 (2007, 11, 28). 김연아 2007-2008 시즌 ISU 피겨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2007, 11, 10). <http://www.donga.com>.
- 박영신 (1989). 한국 학생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과 학습동기화과정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움,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85~125.
- 박영신, 김의철 (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 중 고 대학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

- 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 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 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 심리학 총서 3.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6a).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6b).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V):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419~460.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허희숙 (예정).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김영희, 최중숙, 함병미, 임미향 (예정).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종단적 추적을 통해 본 한국 청소년 학업성취 현상의 심연: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작용을 통한 역동적 과정 분석.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

- 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5~110.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박현정, 이광현, 강성국 (2005).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5-16.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 손승영, 전효관, 정경희, 주은희, 최은기 (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총서 1. 서울: 학지사.
-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과 부모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4(2), 327~353.
- 이미경, 박선화, 손원숙, 남민우 (2006). 2006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 (PISA): PISA 2006 본검사 시행. 연구보고 RRE 2006-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일용 (2000). 이교수의 미국교육 이야기. 서울: 학지사.
- 이현청 편역 (2001). 미국교육의 반성: 미국이 아시아교육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 서울: 원미사. Stevenson, H. W. & Stigler, J. W. (1994). *The learning gap*.
- 조선일보 (2007, 8, 28). 슈퍼우먼... 사커 맘... 이젠 '알파 맘' 시대: 여성들, 가족·직업·개인삶 조화시키며 살아.
- 조선일보 (2007, 10, 17). 자식 낳아 대학졸업까지 2억3,199만원 들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3년새 16.8% 늘어
- 조선일보 (2007, 10, 24). 8년째 어김없는 '황의 법칙': 삼성전자, 30나노 64기가 낸드플래시 세계 첫 개발.
- 조선일보 (2007, 11, 27). 네덜란드 고교생들 "수업시간 연장 반대" 데모.
- 조선일보 (2007, 12, 31). 생보자 팔순 할머니 20년간 아껴서 모은 전재산 1800만원 가난한 대학생들에 기부.
- 조선일보 (2008, 1, 15). 이명박 국정 방향은 '노무현 뒤집기': 李-"대학에 자율 주면 사교육비 부담 줄어" 盧-"자유 주면 학부모 등 회고 애들은 코파".
- 주삼환 (2002). 한국교육의 위기. 서울: 동문사.
- 중앙일보 (2007, 11, 27). 김용철 '삼성 비자금 2000억 조성' 삼성 '또 허위 주장: 법적 대응 강구'
- 중앙일보 (2007, 12, 5). 원하는 과학만 공부, 어려운 과학 누가 선택하겠나: 고교생 과학성적 세계 순위 추락 왜? 고교 교육과정에 허점.
- 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학부모와 교육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3~19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21세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길러야 할 학력의 성격. 연구자료 ORM 2001-1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2, 4). 보도자료. 대한민국, OECD PISA에서 높은 교육 성취수준 달성: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2006) 주요 결과 발표.
-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가 지각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1

~19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hang, W. G., Park, Y. S. & Kim, U. (2007). Korean children and parents' conception of filial p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84. July 25-28, Magellan Sutura Harbour, Kota Kinabalu City, Malaysia.
- Jung, B. Y., Kim, U. & Park, Y. S. (2007). Korean adults' onception of filial p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81. July 25-28, Magellan Sutura Harbour, Kota Kinabalu City, Malaysia.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views. Kim, U., Aasen, S., & Ebadi, S.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443~505. Norway: Fagbokforlaget.
- Kim, U., & Choi, S. C. (1994). Chapter. 1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o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226~257).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a). The scientific foundation of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In U. Kim, K. S. Yang, & K. K. Hwang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Kim, U., & Park, Y. S. (2006b).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c). Understanding human potential, creativity and achievement: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Q. Jing., M. R. Rosenzweig, G. d'Ydewalle, H. Zhang, H-C Chen & K. Zhang (Eds.). *Progress in psychological science around the world. vol. 2: Social and Applied Issues*, 331~348. London: Routledge and Psychology Press.
- Kim, U., & Park, Y. S. (2007). Development of indigenous psychologies in the global context: Understanding people in cultural context. In M. J. Stevens & U. P. Gielen (Eds.), *Toward a glob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interventions,*

- and pedagogy*. 147~17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im, U. & Park, Y. S. (2008).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Elsevier/Academic Press.
- Kim, U., Park, Y. S., Kwon, Y.,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4(3), *Special Issues*, 338~354.
- MBC 스페셜 특집 (2008, 1, 19, 93회) 열다섯 살, 꿈의 교실: 2부 꼴찌라도 괜찮아.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 Park, Y. S., & Kim, U. (2006).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In U. Kim, K. S. Yang, & K. K. Hwang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421~444. New York: Springer.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 1, 14). 벼락부자, 그 후: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 YTN 뉴스 (2008. 1. 28). 과도한 교육열, 위장 전입 기승.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1. 23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26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n society (Ⅱ):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success of Korean adolescents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is article examines psychologic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educational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By reviewing empirical research, three core areas are outlined. First, positive and negative roles that Korean society play on academic achievement are analyz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n society places a high premium, pressure and investment on educational achievement. This has contributed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ut at the same time it has created numerous social problems. Second,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dynamics of investing in and achieving success in education are delineated. Through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role parents play in motivating and regulating their children to succeed academically is reviewed. In addition, the role of teachers and friends and the coordinated efforts of Korean society are outlined. Third, future directions and transformations in education that are needed in Korean society are discussed. Although Korean adolescents are high achievers in high school, this is not the case at the university level. Since Korean students are interested in entering a prestigious university, they have developed skills in doing well in standardized tests. Educational reform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dividuals' personal interests, skills and creativity to ensure that the knowledge that they acquired can be used to further their career and improve their subjective well-being. Educational transformation does not imply simply adopting Western models, but developing indigenous models that can maximize human and cultural potential and stimulate curiosity, diversity and creativity that are necessary in the global era.

Key words : educational achievement, indigenous psychology, parent-child relationship, achievement pressure,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